

#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통해 본 대학간 불평등

한 준\* · 한 신 갑\*\*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학력간 임금격차 못지 않게, 대학교 졸업자 내에서의 불평등이 중요해졌다. 대졸자 내부의 임금 및 비임금 격차가 출신 대학교 집단 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노동패널 3차 및 7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대학교 집단 간의 주된 차이는 상위권 대학교와 그밖의 대학교들 사이에 있으며, 임금 및 그밖의 여러 형태의 성과 면에서 상위권 대학교 졸업자들이 승자독점적 형태의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I.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는 교육열이 대단한 사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대학교 입시경쟁으로 지향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입은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듯이 대단히 경쟁적이고 학부모와 수험생 모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것은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을 계층 상승이동의 주된 경로로 생각하는 한국의 일반적 통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계층적 지위의 유지 혹은 상승을 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동시에 어떤 대학교를 졸업하는가에 따라 사회에서 대단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성공의 기회도 달라질 것이라는 일반화된 신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학벌 집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과중해지고 그 결과 입시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사회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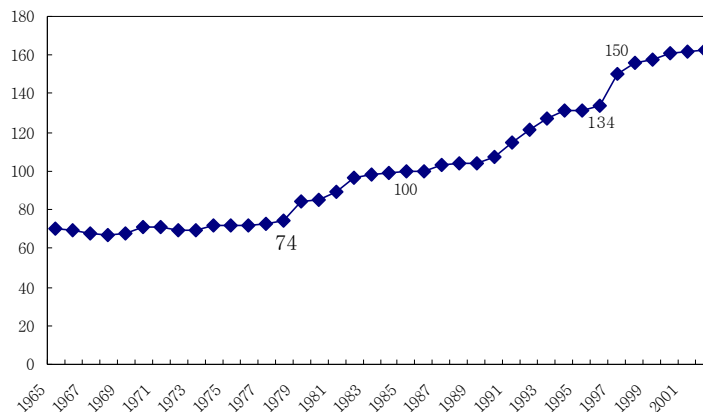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학교를 졸업하였는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존재할까? 달리 표현하면 명문교와 비명문교의 차이는 졸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 간에 어느 정도 혹은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그것은 뒤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학 간에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경쟁의 결과 불평등한 지위의 서열이 재생산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 서열이 상당 정도 고착될 경우 그것은 대학교 조직의 산출(output)로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 II. 대학간 불평등과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

### 1. 한국 대학의 양적 팽창과 그 노동시장적 함의

한국의 대학은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다. <그림 1>은 한국 4년제 대학교 수의 증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까지 70개 정도에 머무르던 대학의 수는 1970년대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1985년에는 100개가 되었다. 199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다시 199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대학교의 수는 1996년과 1997년 사이에만 무려 16개가 늘어나 2002년 현재 163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 대학교의 수적 증가 추세: 1965~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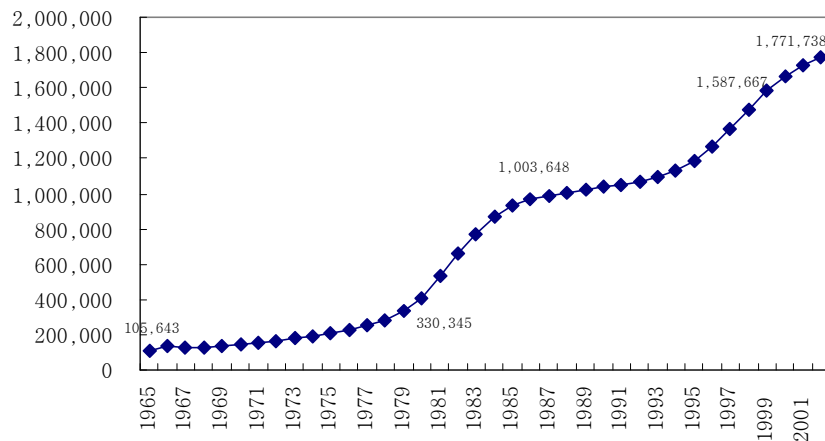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홈페이지 <http://std.kedi.re.kr>에서 인용)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학교 수의 증가를 주도했던 것은 지방의 사립대학교들이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으로 더 이상 수도권에 대학교가 신설되지 못한 반면, 지방에는 국립 지방대가 주도하던 고등교육의 수요를 노리고 사립대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1996년 이후 대학수의 급증을 가져왔던 직접적 원인은 대학준칙주의의 실시였다. 과거 대학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 결과, 대학교의 수는 이 시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학교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대학마다 정원 또한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은 1965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생 수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대학생 수의 증가는 <그림 1>에 나타난 대학교 수의 증가에 비해 1980년대 전반과 1990년대 두 번의 급속한 증가의 시기가 더욱 뚜렷하게 구분된다. 1965년에 겨우 10만이 넘던 전체 4년제 대학생의 수는 1980년대 전반 정부의 졸업정원제 실시를 거치면서 1988년에는 100만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대학의 설립이 용이해져서 대학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1990년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대학생의 수는 2002년도에 177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림 2] 대학교 학생수의 증가 추세: 1965-2002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홈페이지 <http://std.kedi.re.kr>에서 인용)

한국처럼 빠른 대학생 수의 증가와 진학률의 증가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일 것이다.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대학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대학교육이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supplier's market)으로부터 급속하게 수요자 중심의 시장(consumer's market)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대학교들 간의 학생 유치 경쟁이 만만치 않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 교육의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천으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속에서 고등교육은 남들보다 높은 보상과 성과를 거두기 위

한 일종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고등교육의 혜택이 제한되었던 과거에는 학력간 노동시장의 분절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의 격차가 크게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즉 최종학교의 학력을 주요한 불평등의 설명요인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고졸과 대졸 간의 격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처럼 노동시장 연구에서 학력간 임금격차에 주목하는 이면에는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 간의 불평등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이른바 학력의 “구간내 동질성” 가정이 깔려 있었다. 주요한 차이가 학력 구간별로 존재하지 구간 내에서의 차이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이 이른바 토너먼트식 경쟁에서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용되었던 과거에는 이러한 가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육자의 희소성이 사라지게 된 이후에는 학력간 사회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갖기 힘들게 되었다. 대학졸업자가 급증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대졸자 내부의 이질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확대와 대학교 및 대학졸업자의 양적 팽창이 갖는 노동시장적 함의를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가설 1.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대학졸업자 내부의 불평등이 유의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자 간의 불평등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대학 조직간의 지위와 명성을 둘러싼 경쟁과 그에 따른 지위와 명성의 불평등한 분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 2. 대학 조직간 지위경쟁과 불평등

Clark(1983)에 따르면 대학 조직에서 핵심적인 시장은 고등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시장(consumer market)으로서 학생 시장, 연구 및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시장(labor market)으로서 교수 시장, 그리고 대학 조직들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시장(institutional market)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희소성을 지닌 자원은 무엇인가? 학생시장에서는 단연 우수한 학업능력을 지닌 학생들이다. 교수시장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연구능력을 가진 교수들이다. 제도적 시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앞서처럼 자명하지 않다. Clark(1983)와 Stinchcombe(1998)은 대학 조직들이 상호작용하는 제도적 시장에서 희소성을 띠고 배분되는 것이 명성(reputation)과 위세(status)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명성과 위세가 희소성을 띠고 대학 조직들 간에 분배되며, 대학 조직들은 이를 얻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성과 위세를 둘러싼 제도적 시장은 앞의 두 시장, 즉 학생 시장과 교수 시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 시장에서 소비자인 학생들의 선택이나 생산자인 교수들의 선택 모두 대학의 명성과 위세를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Stinchcombe(1998)은 대학의 명성과 위세가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의 주가와 유사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학이나 기업이 지닌 무형자산을 평가한 결과로 매겨진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주가에 비해 명성과 위세는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학 조직에 대한 평가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일종의 신호(signal)로서 명성이나 위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한번 정해진 명성과 위세의 체계는 상당한 안정성을 지니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Podolny 1993). 어떤 의미에서는 명성과 위세는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직이 보여 온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한번 굳어진 명성이나 위세는 자기재생산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자기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대학이 훨씬 뛰어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성이나 위세는 행위자 자체의 속성이 아닌 행위자가 차지한 위치에 따르는 이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성격도 지닌다(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으로서 명성과 위세는 대학 조직들 간에 서열구조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승자독점(winner-take-all)의 경향이 강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Frank and Cook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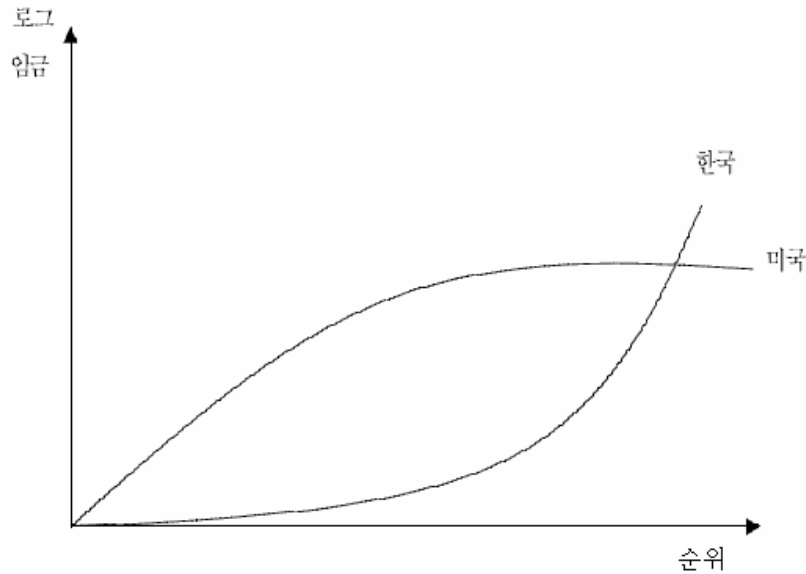
### 3. 대학 졸업자의 사회경제적 성과에서의 불평등

대학교들 간의 지위와 명성이 과연 이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외국의 연구들이 있는 반면, 국내의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예외적으로 장수명, 2002 참조).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대졸자간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설명은 주로 개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인적 자본론과 그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신호(signal) 이론, 그리고 일종의 차별적 교제에 따른 동료집단 효과(peer-effect)를 강조하는 설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대부분 시장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인적 자본론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엘리트 대학교에 몰리게 되고 또한 이들 대학교의 교육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엘리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인적 자본의 질이 우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신호 이론에서는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질이 우수한지를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출신 대학교의 명성이나 지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질에 대한 신호를 노동시장에 제공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신호는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명성과 지위에 따른 차별적 대우와 보상의 배경에는 과거의 평균적인 질적 우월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적자본 이론이 개인에 주목하고 신호 이론이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동료집단 효과는 조직 즉 대학교 내에서의 개인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들이 우수한 대학교나 학과에 집중적으로 몰림에 따라 학교생활 중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동료 집단 효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엘리트 대학교의 졸업자들의 인적 자본의 질이 더욱 우수해진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이 대체로 지지를 받아왔다 (Brand and Halaby 2005; Dale and Krueger 1999; Dowd 1999; Epple, Romano and Sieg 2000; Thomas and Zhang 2004).

한국에서는 과연 그러면 사정이 어떨까? 앞에서 설명한 인적 자본과 신호, 동료집단 효과에 덧붙여 한국에서는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장수명(2002)은 대학교 졸업자들의 성과가 출신 학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하위에서 임금이 급하게 하강하고 중간 및 상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상위로 갈수록 임금이 급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승자독점적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로그임금-순위 곡선이 다른 형태를 보이는 주된 이유로 그는 인적 자본의 차이 및 동료집단 효과 이외에도 이른바 연줄효과라고 할 수 있는 학벌주의적 인식과 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림 3] 로그임금-(대학교)순위 곡선의 한국과 미국 비교



김용학(2003)은 한국 사회의 학연에 따른 연줄망 동원이 기회와 자원의 집단적 독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선화와 Brinton(1996)역시 엘리트 대학교에서의 교육이 인적 자본 이외에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통해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벌주의가 언제나 유유상종(homophily)적 동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학벌주의는 관행화되어 기업이나 그밖의 조직들에의 정책결정자와 인사담당자들은 엘리트 대학교 출신자들에게 우수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의 지위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학벌주의 의식과 학연에 기초한 연줄 동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출신 대학교에 따른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의 불평등은 특혜가 최상위에 집중되는 승자독점적 양상을 취할 것이다.

### III. 자료 및 방법

####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3차(2000년) 및 7차(2004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단위 패널조사로 1998년 1차 조사 이래 계속되어 왔다. 노동패널 자료에는 경제활동 및 교육 관련된 일반적 항목들과 함께 출신 학교에 대한 정보 역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출신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피고용자의 임금 및 그 밖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출신 학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사회경제적 성과로는 월평균 임금의 로그값, 일하는 직장의 규모(종업원 수)의 로그값, 5점 척도로 측정된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 교육수준과 적합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월평균 임금과 직장 규모의 로그값을 취한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보이기 때문이며 로그변환을 통해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주된 독립변수인 출신 대학교는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상위권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포함되며, 나머지 세 집단은 서울 지역 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 지방 사립대학교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사용한 이유는 표본에 포함된 대학 졸업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따라서 대학교에 수학하거나 졸업할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변화했던 대학교의 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대학교 순위를 이용하는 것이 측정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측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도적인 구분과 지역적 구분을 교차하여 이러한 서울 지역 대학교 및 지방 국립, 사립 대학교를 구분하였다. 그밖에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및 대학원졸 등으로 구분하였고, 통제변수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경력 년수 및 그 제곱값, 연령 및 성별 등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표 1>에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표로, 연속형 변수의 경우 요약통계치로 제시되어 있다.

<표 1>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빈도 및 요약통계치

		빈도		상대빈도(%)	
대졸 이상	상위권 대학	645	55	21.4	8.5
	서울지역 대학교		206		31.9
	지방 국립대학교		135		20.9
	지방 사립대학교		249		38.6
초졸 이하		330		11.5	
중졸		421		14.6	
고졸		1199		41.7	
전문대졸		312		10.8	
남성		1786		49.1	
일과 교육의 적합 여부		3340		79.4	
상용직(2000)		2772		76.2	
상용직(2004)		1716		47.1	

	2000			2004		
	평균	표준편차	유효사례	평균	표준편차	유효사례
월평균 임금(만원)	108.6	64.1	3620	178.5	110.8	2111
경력기간(년)	5.1	6.8	3617	8.3	7.6	2370
주간 노동시간(시간)	52.5	16.2	3629	51	14.6	2104
직장규모(종업원수)	317.9	646.6	2752	460.4	876.2	1045
전반적 만족도				3.35	0.66	2450
나이(만)	38.4	11.1	3629	42.5	11.3	2931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임금 격차 및 조직의 규모, 그리고 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서의 출신 학교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OLS 방법에 의한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임금 및 조직 규모의 경우 종속변수가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보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값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임금 격차



임금근로자의 로그임금에 대한 회귀모형의 추정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교육수준에서의 “구간내 동질성”을 가정한 일반적 모형이다. 주된 관심변수인 교육수준을 보면 각 구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표에 제시된 계수 추정치가 가법적(additive) 계수이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승법적(multiplicative) 계수로 변형시켜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 [그림 4]의 위의 그림이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고졸은 중졸 이하에 비해 20% 정도 월평균 임금이 더 많고 전문대졸은 약 30% 정도 더 많은 반면, 대졸은 60% 이상 그리고 대학원 졸은 두 배이상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교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출신 대학교 집단을 추가적으로 구분한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표 2>에서 볼 수 있다( $F_{값}=5.43, p<0.001, df=3$ ). 역시 변수의 효과를 보기 위해 계수들을 지수 전환하여 승법적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의 아래 그림이다. 모형 2에 추가된 대학교 집단 가변수의 기준 범주가 지방 사립대이므로 이 그림에서 대졸은 지방 사립대의 효과이다. 이 그림에서 지방 대학교의 경우 사립과 국립을 불문하고 중졸 이하에 비해 60% 정도의 월평균 임금을 더 받는 것에 비해 서울 사립대학교 출신의 경우 그 차이가 70%가 넘고 상위권 대학교 출신의 경우 130% 가까이 월평균 임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000년의 경우 가설 1의 핵심적 쟁점인 대학교 교육에서의 구간내 동질성이 맞지 않으며 대학교 졸업자 내부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인케 해준다.

<표 2> 로그임금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치: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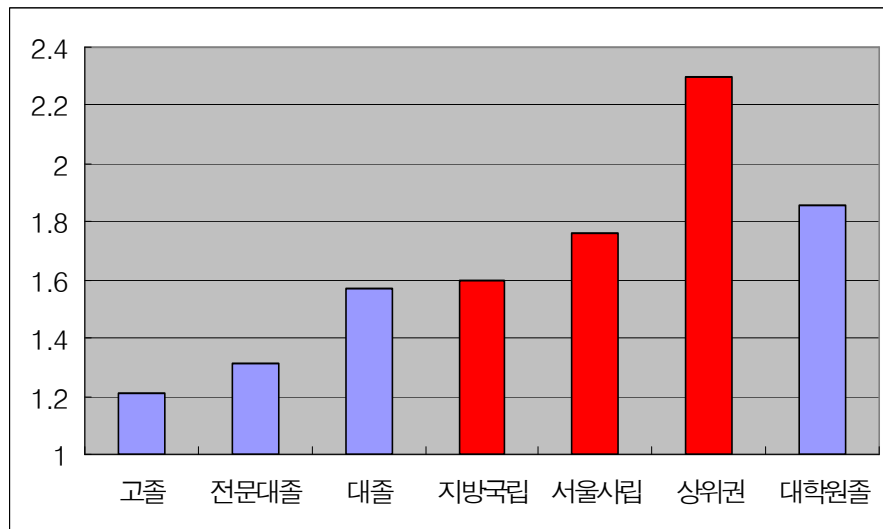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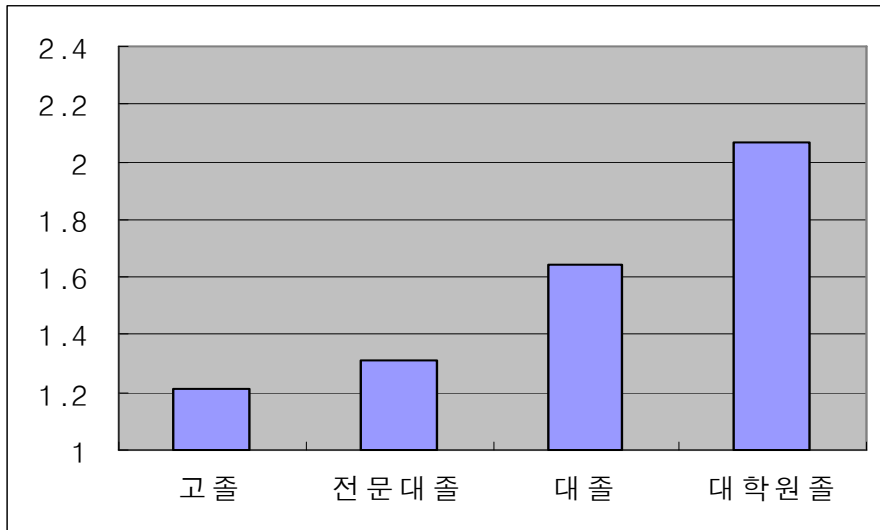
	모형1		모형2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3.389**	0.045	3.387**	0.045
성별(남성=1)	0.389**	0.025	0.387**	0.024
경력	0.042**	0.004	0.042**	0.004
경력*경력	-0.001**	0.000	-0.001**	0.000
종사상지위(상용직=1)	0.285**	0.030	0.282**	0.030
노동시간	0.007**	0.001	0.007**	0.001
고등학교 <sup>1)</sup>	0.193**	0.029	0.192**	0.029
전문대 <sup>1)</sup>	0.272**	0.043	0.271**	0.043
대학교 <sup>1)</sup>	0.498**	0.036	0.450**	0.042
대학원 <sup>1)</sup>	0.726**	0.077	0.618**	0.082
서울상위권 <sup>2)</sup>			0.383**	0.102
서울사립대 <sup>2)</sup>			0.115*	0.057
지방국립대 <sup>2)</sup>			0.018	0.067
N	2598		2598	
R <sup>2</sup>	0.357		0.361	
F	159.372**		121.5**	
F-변화량(모형1 vs 2)			5.43**	

\*p<0.05    \*\* p<0.001

1) 기준 범주는 중졸 이하

2) 기준 범주는 지방 사립대

[그림 4] 로그임금에 대한 교육의 승수효과(2000년):  
대학별 동질성 가정시(위) 및 대학별 구분 추가후(아래)



2000년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키 위해 동일한 회귀모형을 2004년도 자료에 적용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역시 추정된 계수들을 지수 전환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2004년의 경우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중졸 이하와의 임금 격차가 약간씩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고졸의 경우 약 30%, 전문대졸의 경우 약 55%, 대졸의 경우 약 90% 가까이 높은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대학원졸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로그임금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치: 2004년

	모형1		모형2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3.676**	0.037	3.674**	0.036
성별(남성=1)	0.387**	0.018	0.387**	0.018
경력	0.050**	0.004	0.050**	0.004
경력*경력	-0.001**	0.000	-0.001**	0.000
종사상지위(상용직=1)	0.257**	0.022	0.255**	0.022
노동시간	0.004**	0.001	0.004**	0.001
고등학교 <sup>1)</sup>	0.248**	0.021	0.248**	0.021
전문대 <sup>1)</sup>	0.454**	0.034	0.452**	0.034
대학교 <sup>1)</sup>	0.657**	0.029	0.624**	0.033
대학원 <sup>1)</sup>	0.763**	0.060	0.695**	0.064
서울상위권 <sup>2)</sup>			0.332**	0.084
서울사립대 <sup>2)</sup>			0.048	0.044
지방국립대 <sup>2)</sup>			0.056	0.053
N	2582		2582	
R <sup>2</sup>	0.543		0.545	
F	339.122**		256.968**	
F-변화량(모형1 vs 2)			5.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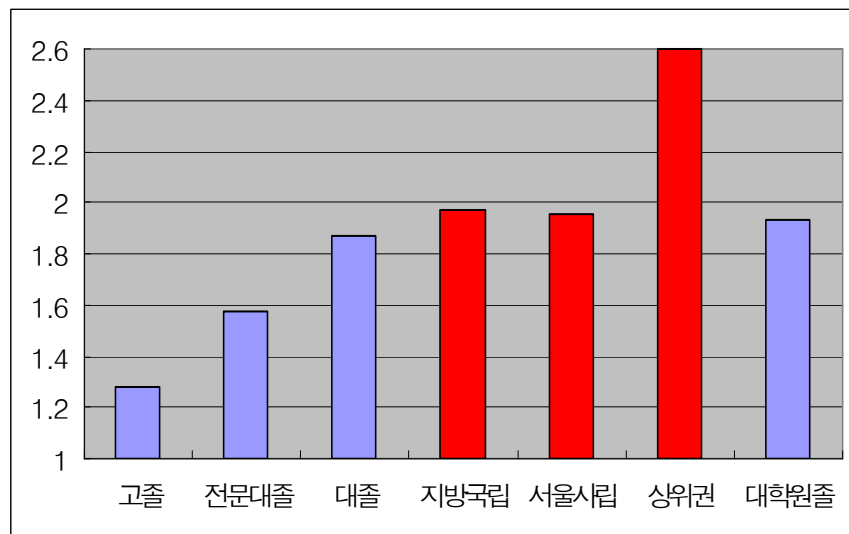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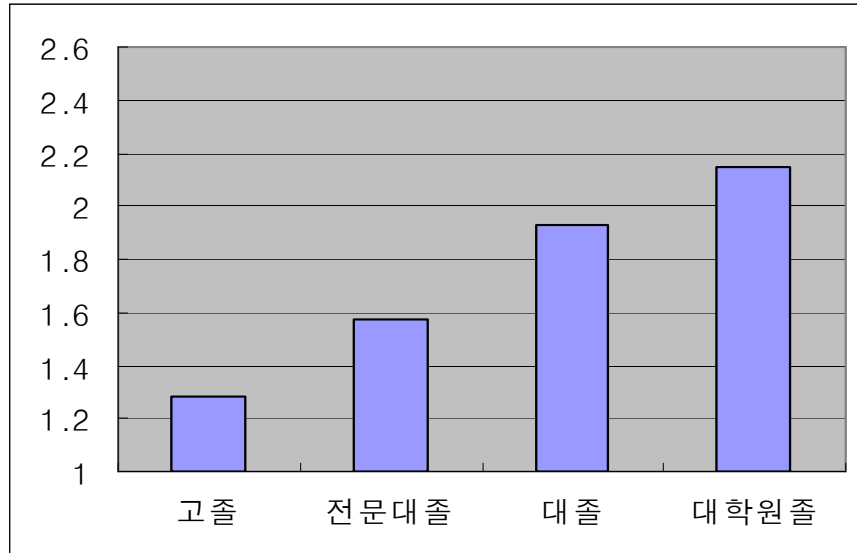
\*\* p<0.001

- 1) 기준 범주는 중졸 이하
- 2) 기준 범주는 지방 사립대

대학교 집단별 구분을 추가한 모형 2는 2004년에도 유의하게 적합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5.348, p<0.001 df=3). 그런데 각 집단별 차이를 보면 2000년에는 지방 사립대학교에 비해 서울지역 대학교와 상위권 대학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상위권 대학교들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상위권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동질적인 양상이 보인다. 그림 5의 아래 그림을 통해 보면 지방 사립 및 국립 대학교와 서울지역의 대학교들 모두 대체로 중졸 이하에 비해 80~100% 사이의 임금 차이를 보이는데 비해 상위권 대학교들은 160% 가까이 더 높은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인다. 2000년에 비해 볼 때 이것은 두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 우선 지방 대학교들과 서울지역 대학교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지방 대학교 출신자들의 성과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들의 성과가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상대적으로 본다면 양쪽 모두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들이 누리는 추가적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상위권 대학교들과 다른 대학교들의 졸업자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및 2004년도 자료의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의 학교 순위간 임금 격차가 승자독점적 형태를 취한다는 가설 2를 지지한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림 4]와 [그림 5]의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로그임금에 대한 교육의 승수효과(2004년):  
대학간 동질성 가정시(위) 및 대학간 구분 추가후(아래)



## 2. 비임금 격차: 만족도, 적합도, 조직규모

불평등은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객관적이고 물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임금적 성과에서의 불평등을 보기 위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와 일과 교육수준의 주관적 적합도, 현재 일하는 조직의 규모 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이 주로 출신 대학교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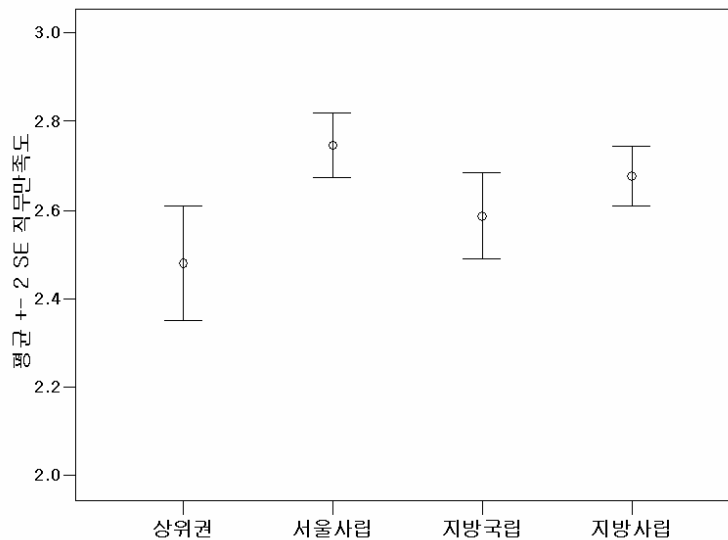
은 대학졸업자로 한정하였다.

우선 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출신 대학교 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출신 대학교 집단간 차이를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 [그림 6]이다. 회귀모형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위권 대학교 뿐이었다. 그래프를 보면 5점 척도(1점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에서 대체로 만족의 방향에 있지만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들이 다른 대학교 출신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만족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회귀모형 추정치: 2004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3.280	0.061
성별	-0.112	0.047
상용직 여부	0.102	0.046
경력기간	0.003	0.009
경력기간*경력기간	0.000	0.000
상위권대학교 <sup>1)</sup>	-0.176	0.083
서울지역 대학교 <sup>1)</sup>	0.084	0.048
지방 국립대학교 <sup>1)</sup>	-0.045	0.058
N	1078	
R <sup>2</sup>	0.046	
F	7.299	

1) 기준 범주는 지방 사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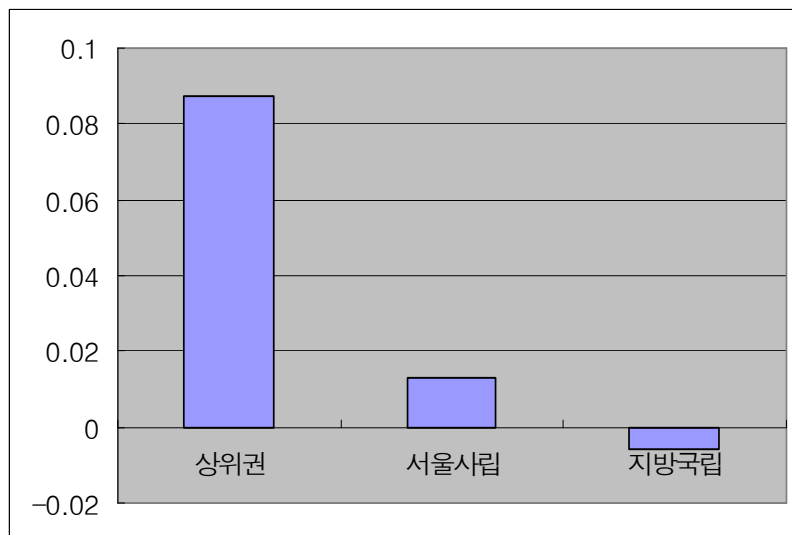
[그림 6] 전반적 직무 만족도(1-5)의 출신 대학교 집단간 비교

전반적 만족도와 함께 비임금 격차를 보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이 받은 교육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분변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수 추정치를 제시하며, [그림 7]은 계수추정치로부터 일자리와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할 확률을 출신 대학교 집단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표와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일자리와 교육수준의 적합도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할 확률은 상위권 대학교와 다른 대학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와 다른 대학교들의 차이는 확률에서 0.08 정도이다. 전체 확률의 평균이 0.8이고 표준편차가 0.16이므로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의 격차는 표준편차의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5> 일과 교육수준의 적합도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성별	-0.188	0.188
경력기간	0.128	0.019
연령	-0.038	0.009
상위권대학교 <sup>1)</sup>	0.771	0.384
서울지역 대학교 <sup>1)</sup>	0.094	0.185
지방 국립대학교 <sup>1)</sup>	-0.041	0.219
상수	2.201	0.324
N	1086	
-2 Log우도	1002.328	
Cox & Snell R2	0.062	

1) 기준 범주는 지방 사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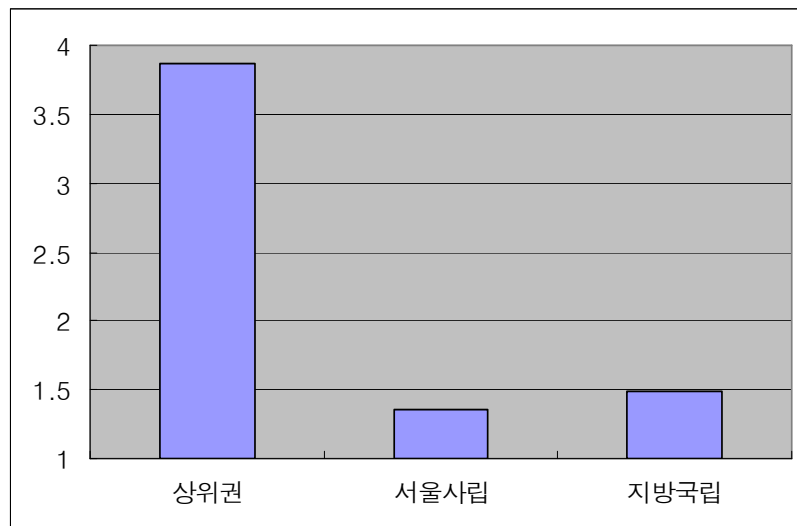
[그림 7] 교육수준에 비해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응답할 확률의 출신 대학교별 차이

마지막으로 종업원 수의 로그값으로 측정된 현재 일하는 조직의 규모에서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고, 대학교 집단간 차이에 대한 계수값을 지수 전환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분석 결과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 규모 면에서도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와 다른 대학교 출신자들의 격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들의 경우 지방 사립대 출신들에 비해 4배에 가까운 규모의 조직들에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이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이선화와 Brinton(1996)의 선행 연구 결과를 최근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6> 조직 규모의 로그값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0.461	0.207
성별(남성=1)	0.358	0.178
경력기간	0.077	0.013
상위권대학교 <sup>1)</sup>	0.663	0.321
서울지역 대학교 <sup>1)</sup>	0.163	0.175
지방 국립대학교 <sup>1)</sup>	0.314	0.222
상용직 여부	2.333	0.161
N	503	
R <sup>2</sup>	0.353	
F	45.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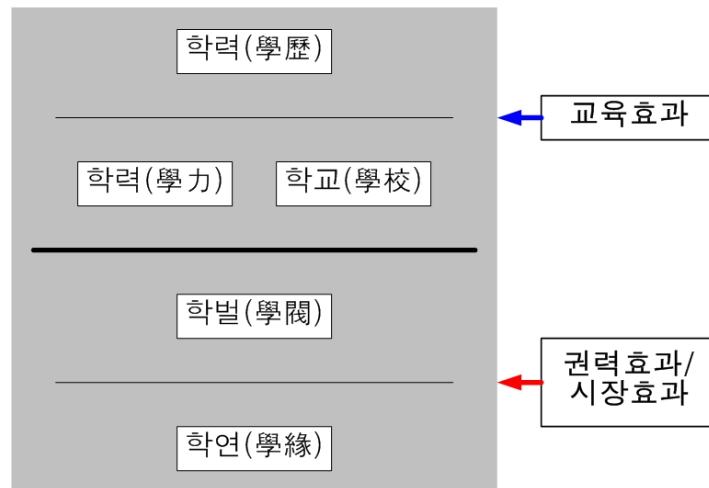
1) 기준 범주는 지방 사립대



[그림 8] 조직 규모에 대한 출신 대학교 집단 차이의 승수 효과

## V. 맺음말

대학교를 졸업한 임금근로자들 간의 출신 학교 간 임금 및 비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위권 대학교 출신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격차의 확인을 통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교육과 불평등의 관계를 볼 때 가정되어 온 교육 수준의 ‘구간내 동질성’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또한 이른바 양극화가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격차가 아래 그림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과연 대학 교육의 질이나 동료집단 효과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내적인 요인이 아닌 교육 외적인 학벌주의적 인식이나 학연에 기초한 연결망적 동원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림 9] 대학교간 졸업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과적 효과의 분해

본 연구의 한계로 인정해야 할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반영한 대학교들 간의 교육 여건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의 정도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과 또한 졸업자들의 출신 학교 이외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정도 등을 반영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이 통제되지 못한 점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육 효과와 권력 효과를 구분하고 이들 효과들의 비중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면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고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용학, 2003, 「한국사회의 학연 :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 장수명, 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pp. 47~79.
- Brand, Jennie E., and Charles N. Halaby. 2005. "Regression and Matching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lite College Attendance on Educational and Career Achievement," Working Paper.
- Clark, Burton. 1983.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Organiz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3.
- Dale, Stacy Berg, and Alan B. Krueger. 1999. "Estimating the Payoff to Attending a More Selective College: An Application of Selection on Observables and Unobservables," NBER Working Paper 7322.
- Lee, Sunwha and Mary Barinton, 1996. "Elit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July): 177-92.
- Dowd, Alicia C. 1999. "Returns to Field of Study and Institutional Type among Elite College Graduates," Conference Paper.
- Frank, Robert and Philip Cook (권영경, 김양미 역). 1996. 『이긴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 CM 비즈니스.
- Podolny, Joel. 1993. "A Status-based Model of Market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5.
- Stinchcombe, Arthur. 1998. "Monopolistic Competition as a Mechanism: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Nation-states in Competitive Fields," Pp. 267-305. In *Social Mechanisms: An Analytical Approach to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ited by Peter Hedstrom and Richard Swedberg.
- Thomas, Scott L., and Liang Zhang. 2004. "Post-Baccalaureate Wage Growth within Four Years of Graduation: The Effects of College Quality and College Major," *Research in Higher Education*.